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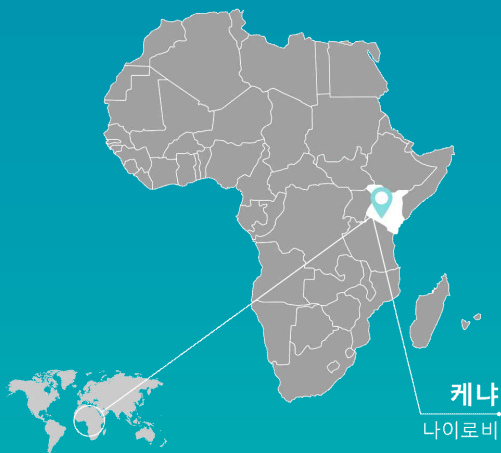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케냐

Republic of Kenya

2024년 2월 21일 | 책임연구원 김경하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580천 km ² 	인구 5,154만명 (2023 ^e)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대외정책 친서방 정책 
GDP 1,127.5억 달러 (2023 ^e) 	1인당GDP 2,188달러 (2023 ^e) 	통화단위 Kenya Shilling(Ksh) 	환율(U\$기준) 139.90 (2023 ^e) 

-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한 케냐는 한반도 면적의 2.6배에 달하는 국토와 약 5,154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남수단, 우간다, 탄자니아 등과 접경하고 있음.
- 2023년 케냐 경제는 농업 생산량 회복, 민간소비 및 투자 증대, 관광업 성장 등으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5.0%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보다 상승한 7.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케냐 중앙은행은 2023년 12월 기준금리를 11년 만의 최고치인 12.5%로 인상함.
-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는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했으나('10년 37.3% → '20년 67.7%), 루토 행정부의 공공부채 축소 및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 시행에 따라 점진적 감소가 전망됨.
-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맹주국으로서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등 지역공동체 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아프리카 내 전략적인 경제·안보 협력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4. 2. 7 수교 (북한과는 1975. 5. 12)

주요협정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1978), 문화협정(1980), 항공협정(1981),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2005), 무상원조협정(2014), 이중과세방지협약(2017), 투자보호협정(2017)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21	2022	2023	주요품목
수출	258,419	456,604	270,014	유기화학제품, 철강제품
수입	46,846	75,736	53,437	동, 알루미늄, 방직용섬유

해외직접투자현황(2023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34건, 10,515천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성장률	5.1	-0.3	7.6	4.8	5.0
소비자물가상승률	5.2	5.3	6.1	7.6	7.7
재정수지/GDP	-7.4	-8.1	-7.2	-5.8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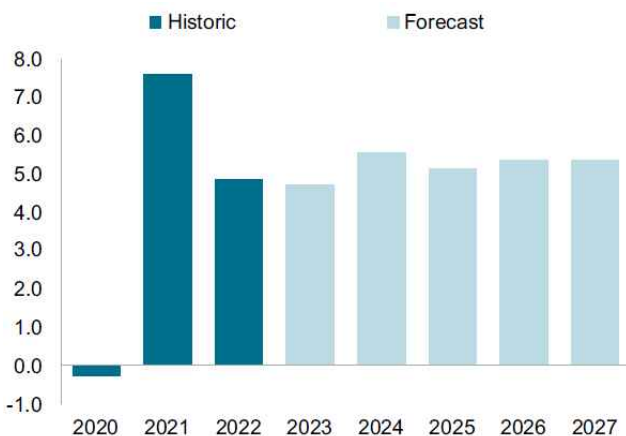
자료: IMF, EIU

2023년 케냐 경제는 농업 및 관광 부문 회복, 민간소비 활성화 등으로 5.0% 성장 추정

- 케냐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0.3%의 역성장 기록)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민간소비 회복,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2021년 7.6%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였고, 2022년과 2023년에도 동일한 추세가 지속되어 각각 4.8% 및 5.0%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2년 '아프리카의 뿔' 지역의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농업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부문의 회복, 평화적 정권 교체, 주요 인프라 개발, 국제무역 재개, 전략적 투자유치 등으로 4.8%의 경제성장을 기록함.
- 2023년에는 농업 생산량 회복에 따른 농업 부문 성장('23년 3분기 6.7% 성장), 민간소비 및 투자 증대, 관광업 성장('23년 해외 관광객 수 전년 대비 18.42%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5%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4년에도 5.3%의 성장이 전망됨.
- 2019년 광산업 분야 면허 발급 허가 조치 이후 동 분야에 대한 허가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2024년에는 광업 분야가 케냐 경제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케냐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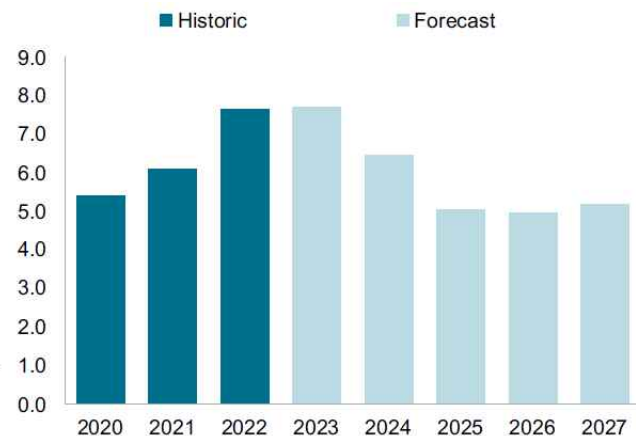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S&P Global.

[그림 2] 케냐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자료: S&P Global.

국내경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에 5년 만의 최고치 기록 후 2023년에도 다소 상승 추정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및 원자재 국제가격과 식료품 가격의 상승, 달러화 대비 실링화 가치* 하락 등으로 2022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년 만의 최고치인 7.6%를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이보다 소폭 상승한 7.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113.0('22.1.2) → 123.5('23.1.3) → 157.4('2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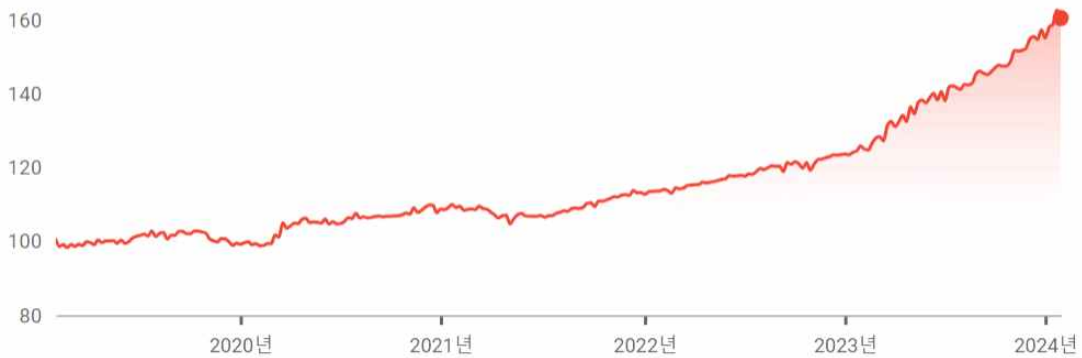
** 4.7%('18) → 5.2%('19) → 5.3%('20) → 6.1%('21) → 7.6%('22) → 7.7%('23)

- 케냐 중앙은행(CBK)은 이에 적극 대응하여 2023년 12월 기준금리를 11년 만의 최고치인 12.5%로 대폭 인상함.*

* 7.0%('22.3월) → 7.5%('22.5월) → 8.25%('22.9월) → 8.75%('22.11월) → 12.5%('23.12월)

- 그 결과 2023년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6%로 20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에너지 가격의 소폭 하락과 농업 생산량 증가에 따른 식품 가격 상승세 둔화도 동 상승률 하락에 일조한 것으로 추정됨.
- 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3년보다 하락한 6.1%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링화 약세도 완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민간소비 및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 미 달러화 대비 케냐 실링화의 환율 변동 추이



자료: Google Finance.

[그림 4] 케냐 기준금리 변동 추이

(단위: %)



자료: CEIC.

국내경제

인프라 투자 및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지출 확대 이후 재정수지 적자 지속

- 경제개발계획 Vision 2030에 맞춰 에너지·교통 분야 중심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2015년 이후 매년 GDP 대비 -7%대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2020년 이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금 감면 조치 등으로 2020~21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8%대로 악화됨.
 - 이에 루토 행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목적으로 세수기반 확대 및 낭비적 정부지출 억제를 통하여 이전 정부에서 문제 되었던 공적채무 축소 및 채무관리 강화에 주력할 것을 선언하며 보조금 축소 및 세금 인상 정책을 실시함.
 - 그 결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2년 -5.8%에서 2023년 -4.7%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세금 징수 개선, 루토 행정부의 정부지출 억제 정책,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에 따른 정부수입 증대를 통해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2027년 이후에는 3%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10년간 증가를 지속해온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0년 67.7%로 정점에 달한 후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며 2030년에는 50% 미만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됨.
- * 63.7%('22) → 61.0%('23) → 60.4%('24) → 54.2%('27) → 47.8%('30)
- 최근 수년간 정부지출의 상당 부분이 수익성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된 바, 향후 정부수익 증대 및 안정된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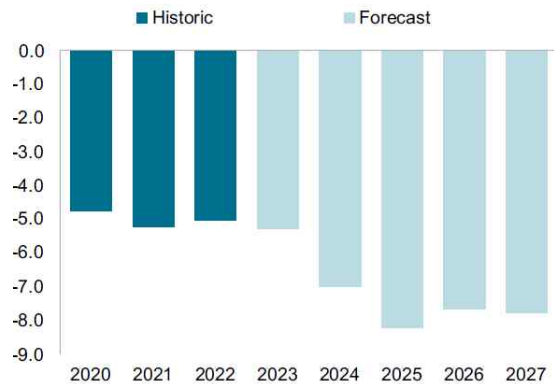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상수지	-5,258	-4,792	-5,744	-5,766	-5,132
경상수지/GDP	-5.3	-4.8	-5.2	-5.1	-4.6
상품수지	-10,683	-8,338	-11,065	-11,704	-11,570
상품수출	5,871	6,052	6,789	7,419	7,630
상품수입	16,554	14,390	17,854	19,123	19,200
외환보유액	9,037	8,251	8,785	7,383	8,075
총외채	52,317	70,389	75,497	81,164	85,384
총외채잔액/GDP	52.2	69.8	68.7	71.4	75.7
D.S.R.	34.1	26.7	24.1	23.6	26.3

자료: IMF, EIU

관광 부문 회복, 수입수요 둔화로 2023년 경상수지 적자폭 전년보다 축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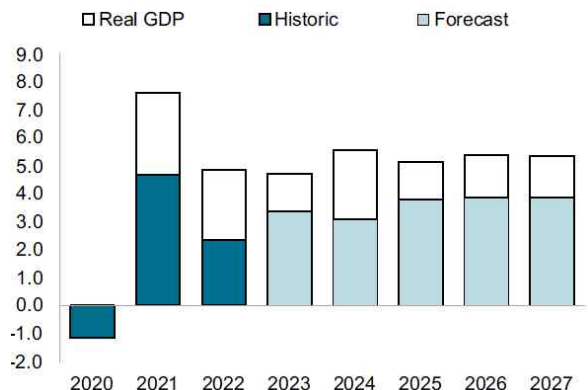
- 2023년 국제유가(전년 대비 10% 하락) 및 상품 수입가격의 전년 대비 하락과 수입수요 둔화 및 관광 부문의 회복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폭의 확대로 2023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전년 -5.1%에서 -4.6%로 소폭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
- 2023년 관광 수입이 전년 대비 69.3%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수지 흑자는 전년 대비 28.1% 증가한 14.8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다만, 2024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에 따른 가계 소비 및 수입 소비재 수요 증대, 실링화 약세 완화 및 달러 공급 개선으로 인한 자본재 수요 증대로 상품수입이 5%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폭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5] 연도별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추이 및 전망 (단위: %)



자료: S&P Global.

[그림 6] 민간소비의 실질 GDP 성장률 기여도 (단위: %p)



자료: S&P Global.

외채상환능력

GDP 대비 외채 비중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외채상환능력 악화 우려

- 2023년 말 케냐의 총외채잔액은 전년 대비 약 5.2% 증가한 854억 달러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전년 대비 약 4.3%p 상승한 75.7%로 추정됨. 케냐는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공공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자본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조세수입 및 FDI 등의 민간자본 공급이 크지 않아 적자 보전을 위한 공공부채 및 총외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옴.

* 총외채(억 달러): 523.2('19) → 703.9('20) → 755.0('21) → 811.6('22) → 853.8('23^o)

- 2023년 말 기준 총외채잔액은 총수출액*의 591.8%, D.S.R.은 전년대비 2.8%p 상승한 26.3%로 추정됨.

* 총외채잔액/총수출(%): 447.6('19) → 721.0('20) → 635.2('21) → 584.0('22) → 591.8('23^o)

** D.S.R.(%): 34.1('19) → 26.7('20) → 24.1('21) → 23.6('22) → 26.3('23)

- 2023년 말 케냐의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3.7개월분으로 전년(3.4개월)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2022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연속 3개월대를 유지하는 중임.

*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개월): 5.1('20) → 4.4('21) → 3.4('22) → 3.7('23^o)

- 주요 원인은 달러화 대비 케냐 실링화 가치의 장기적 하락으로 추정되며, 케냐 중앙은행과 케냐가 속해 있는 동아프리카 경제공동체(EAC)의 목표치인 4개월분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함.
- 케냐 실링화의 지속적 평가절하, 2024년 6월 200억 달러 유로본드 만기 도래 등에 따라 외환보유액 부족으로 인한 대외유동성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관광업 회복에 따른 외화소득 증가, 해외송금 유입액 증가(전년 대비 4% 증가), 세계은행 등 다자기구로부터의 지원 확보는 대외유동성 리스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은행은 2023년 6월 케냐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10억 달러의 대출을 승인했으며, 2023년 11월에는 12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승인 대기 중임을 발표함. 동 지원은 3년에 걸쳐 제공되며, 부채 관리 및 외환유동성 확보 등을 통한 경제구조 강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임.

구조적취약성

전력·수자원 등 기본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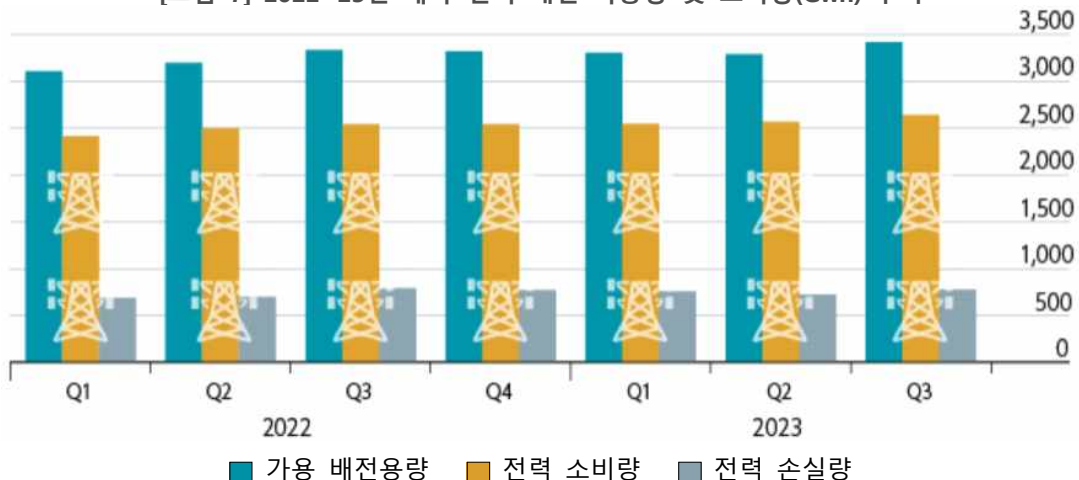
- 케냐는 2019년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서 141개국 중 종합 95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인프라 부문은 110위를 기록하였음. 교통 인프라는 경제개발계획인 Vision 2030에 맞춰 철도·도로 건설 및 보수, 항만 개발, 공항 건설 등 전방위적 투자로 141개국 81위를 차지하며 주변국*에 비해 양호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나, 전기·가스 등 유틸리티 관련 인프라**는 115위로 열악한 수준임.

* 교통 인프라 순위 : 르완다 71위, 우간다 75위, 탄자니아 110위, 에티오피아 121위

** 세부 구성항목: 전력 보급 112위, 전력공급 품질 114위, 안전한 식수 노출 113위, 물 공급 안전도 116위

- 케냐 정부의 전력 생산 및 송·배전 관련 투자 확대로 가정의 전력 보급률은 2013년 32%에서 2022년 75%로 상승하는 등 유틸리티 인프라 개발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케냐 정부의 3차 중기계획(MTP-III) 목표인 '2022년 말 전력 보급률 100% 달성'에는 미치지 못함.
- 케냐 정부는 보편적 전력 보급의 달성 시점을 2030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겼으나, 비싼 전력 요금으로 전력소비 증가가 전력공급 증가를 따라잡지 못함.
- 2023년 4개월간 3차례 발생한 전국적인 규모의 정전 사태로 국제공항, 병원 등 다양한 부분에서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함.
- 동 정전 사태의 주요 원인은 노후화된 송전 시설의 고장으로 신규 발전시설 투자 대비 송전망 시설의 보안 및 유지관리가 경시되면서 2022~23년 정전 빈도가 잦아짐.
- 2023년 1~9월까지 전력 공급량은 2022년과 비교하여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수요가 5.7% 증가했으며, 동 기간 전력 수입은 619GWh로 전년 동기(217GWh) 대비 급증하며 송전망에 추가적 부담을 가함.
- 동 기간 전력 손실은 가용 배전용량의 22.6%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주요 원인인 설비 노후화에 대한 투자가 긴요한 상황임.

[그림 7] 2022~23년 케냐 전력 배전 가능량 및 소비량(Gwh) 추이



자료: EIU

- 한편, UNICEF에 따르면 2020년 케냐의 안전한 식수 공급률은 59%, 개선된 위생시설 사용률은 29%로 여전히 상당수의 저소득층이 식수와 위생시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구조적취약성

농업 의존적 경제구조에서 제조업 등으로 산업다각화 필요

- 케냐 경제는 농업 의존적 구조로, USAID에 따르면 농업 부문은 GDP의 약 33%를 차지하며, 총인구의 40% 이상, 농촌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등 케냐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케냐의 농업은 노동집약적이고, 미미한 관개 비율과 인프라 부족으로 생산성이 낮으며, 가뭄, 폭우, 메뚜기 떼 창궐과 같은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함.
- 케냐 정부는 농업 기반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인식하고 산업다각화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구축코자 제조업 육성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선정, 제조업 부문의 연간 15% 성장을 목표로 제조업 육성정책(2012~30년)을 추진 중임.
- 집중 육성 분야는 ①노동집약적 부문(식품가공업, 섬유·의류, 가죽 및 가죽제품), ②중·상급 기술 부문(철강, 공작기계, 농기계·농구, 의약품), ③첨단 제조기술 부문(생명공학, 나노기술) 등임.
- 그러나 2016~20년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7% 수준이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아직 제조업 발전 속도는 더딘 것으로 평가됨.

[표 1] 케냐의 연도별 제조업 현황(2017~22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제조업 생산(억 달러)	71.7	77.5	79.3	76.5	80.8	88.8
제조업 성장률(%)	1.9	3.6	2.6	-0.3	7.3	2.7
GDP 대비 비중(%)	8.7	8.4	7.9	7.6	7.4	7.8

자료: World Bank DB.

성장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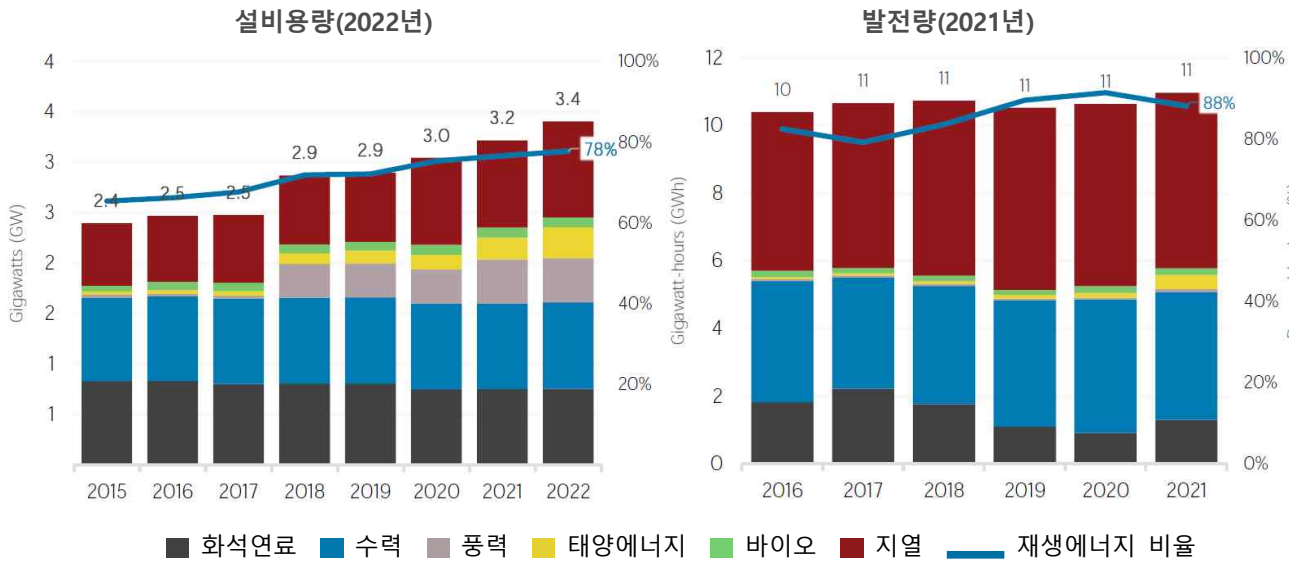
지열 및 기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방식 다각화를 통한 전력난 해소 추진

- 케냐는 동부 아프리카에서 전력 보급률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국가이자 재생에너지 발전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국가임.
- 2012년 수력발전 비중이 전체 전력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수력발전 비중*이 높았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현상의 심화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케냐 정부는 이를 탈피하고자 발전방식 다각화를 위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함.
 - *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수력발전 비중: 50%('12) → 30.5%('18) → 29.4%('20) → 25.3%('22)
- 정부는 2008년 발표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Vision 2030'의 3차 중기계획(MTP-III, 2018~22년)에서 전력 산업을 필수 기간산업으로 지정, 전력 산업 목표 달성을 위해 송전선 건설, 재생에너지 자원 파악 및 자원 지도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
- 그 결과 케냐의 2021년 기준 인구 대비 전력 보급률은 77%로 전년 대비 5%p 이상 증가했으며, 5년 전인 2017년 약 56%와 비교하여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의 완전한 전환 및 에너지 보급률 100% 달성, 국가 온실가스 목표에 따라 탄소 배출량 30% 감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케냐는 지리적으로 지열,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함.
- 지열의 경우 동아프리카 열곡대(East African Rift System: EARS)¹⁾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상당한 발전 잠재력(15GW로 추산)을 보유함.
- 2021년 케냐의 지열발전 설비용량은 863MW('23년 974.7MW¹⁾)로 아프리카 1위, 세계 8위 수준이며, 케냐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47%를 차지함. 케냐는 2030년까지 지열발전 설비용량을 5GW로 증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향후 세계 4위 지열에너지 생산국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케냐는 풍력에너지 개발 잠재력도 높은 편으로, 국토의 73%가 풍속이 초속 6m/s 이상이며(지상으로부터 100m 높이 기준) 특히 북부의 Turkana 호수 주변 지역은 8.0m/s를 초과함. 이러한 입지조건에 힘입어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풍력 프로젝트인 발전용량 310MW급 Turkana 풍력발전소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동 발전소는 연간 1,400G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연간 16백만 톤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수준임.
- 케냐는 총발전량 및 발전설비 용량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특히 지열 등 비수력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임.
- 2021년 기준 총발전량(10,965GWh) 중 화석연료(1,301GWh)는 12%, 재생에너지(9,663GWh)는 88%를 차지하였으며, 총발전설비 용량(3,697.7MW)의 경우 2022년 기준 화석연료(813.5MW)는 22%, 재생에너지(2,884.2MW)는 78%를 차지함(그림 8 참고).

1) EARS는 동부 열곡대(eastern branch)와 서부 열곡대(western branch)로 구성됨. 동부 열곡대는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지부티, 케냐, 소말리아, 탄자니아 북부를 관통하고 발전에 적합한 고온인 것이 특징이며, 서부 열곡대는 부룬디, 우간다, 르완다, 탄자니아 서부, 말라위, 모잠비크, 북부 잠비아를 관통하고 그린하우스, 난방, 농산물 건조 등 직접 이용에 적합한 것이 특징임.

성장잠재력

[그림 8] 케냐의 에너지원별 설비용량 및 발전량 비율(%)



자료: IRENA.

- 2023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에너지 전환 인덱스(ETI)에 따르면, 케냐의 ETI 점수는 57.8점으로 전체 120개국 중 46위, 아프리카 국가 중 1위를 차지함.
- 현재 다수의 지열 및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프로젝트가 계획 중 혹은 건설 중으로, 향후 지속해서 동아프리카 재생에너지 발전을 주도하며 에너지 공급 또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정책성과

루토 대통령, 상향식(Bottom-Up) 경제 전환 아젠다 추진 중

- 루토 대통령은 기존 정부 주도의 산업 및 경제개발 모델인 하향식(Top-Down) 접근 방식이 아닌 케냐 국민의 소득 증대를 우선으로 하는 서민 친화적 정책인 상향식 경제 전환 아젠다(Bottom-Up Economic Transformation Agenda, BETA)를 제시함.
- BETA는 비공식 부문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 창출과 빈곤 감소를 목표로 하는 개발 계획으로, 모든 사람이 경제성장으로 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함.
- BETA의 5대 핵심 분야는 농업, 중소기업(MSME) 경제, 주택 공급, 보건·의료, 초고속 디지털 통신망(digital superhighway) 및 창조경제로 구성됨.
 - 1) 농업: 동 아젠다의 최우선 과제로 농부들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 투입물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 및 기술 지원
 - 2) 중소기업 경제: 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을 목표로 중소기업에게 자금, 교육, 시장 접근 제공
 - 3) 주택 공급: 신규 주택 공급 확대, 저렴한 가격의 주택 공급을 통한 저소득층 자가보유율 확대
 - 4) 보건·의료: 모든 케냐인이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 프로그램(UHC) 확대
 - 5) 초고속 디지털 통신망 및 창조경제: 자동 VAT 시스템을 통한 세수 개선, 초고속 인터넷의 보편적 접근(전국단위), 정부 서비스의 80% 온라인 제공, 통화 및 데이터 비용 감소 등
- 2023년 3월 아프리카 수출입은행(AfriExim Bank)은 케냐 정부의 하향식 경제 전환 아젠다를 지원하기 위해 3년간 제공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4천억 케냐 실링을 제공함.
 - * 3년간 케냐 정부의 우선 사업인 핵심 상품 생산, 물 수확(water harvesting), 농업 역량 강화, 산업단지 건설, 초고속 디지털 통신망에 대한 투자를 지원할 계획임.
- 2023년 9월 케냐 정부는 케냐에서 활동 중인 모든 NGO와 PBO(Public Benefits Organisation)에게 루토 대통령의 상향식 경제 전환 아젠다와 연계된 활동을 할 것을 촉구함.

정책성과

우후루 전 행정부의 Vision 2030을 계승하여 추진 중

- 2008년 초 케냐 정부는 2030년까지 중소득국 진입과 산업화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국가성장전략 'Vision 2030'²⁾을 발표, 이를 위해 제1차 중기계획(MTP-I, 2008~12년)과 제2차 중기계획(MTP-II, 2013~17년), 제3차 중기계획(MTP-III, 2018~22년)에 이어 제4차 중기계획(MTP-IV, 2023~27년)을 추진 중임.
- 제3차 중기계획은 주요 분야인 인프라 개발, ICT 육성, 과학·기술·혁신(STI) 촉진, 토지 개혁, 공공분야 개혁, 노동·고용 창출 등을 포함한 9대 주요 분야의 육성을 통한 성장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와 러-우 전쟁의 여파로 2022년까지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표 2 참고).

[표 2] 2022년 제3차 중기계획 목표 및 실제 성과

항목	제3차 중기계획 목표(2022년)	2022년 실제 수치
경제성장률	7.0%	4.8%
물가상승률	<5.0%	7.7%
총수출/GDP	19.6%	12.2%
국내총투자/GDP	25.4%	19.2%
공적채무/GDP	42.0%	64.2%

- 이번 제4차 중기계획(MTP-IV)은 상향식 경제전환 아젠다(BETA)와 연계된 핵심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제3차와 비교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의 목표로 설정함.
- MTP-IV의 핵심 분야는 BETA의 5대 핵심 분야와 동일한 ①농업, ②중소기업(MSME) 경제, ③주택 공급, ④보건의료, ⑤초고속 디지털 통신망 및 창조경제로 구성됨.
- 주요 목표는 ①연간 물가상승률 5% 미만 달성을 통한 생활비 감소, ②굶주림 타파, ③연간 120만 개의 고용 창출, ④세수 기반 확대(2027/28년까지 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 18.3% 목표), ⑤수출 촉진을 통한 외화 보유량 개선(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 6.1개월분 목표(현재 3.7개월분)), ⑥모두가 참여하는 포괄적 성장 달성임.
- 한편, 케냐 정부는 Vision 2030 달성을 위해 제4차 중기계획과 더불어 전 정권의 핵심 5개년 개발 사업인 4대 국정과제(Big 4)*를 계승하여 추진 중임.
 - * 2018~22년 간 ①제조업 활성화, ②서민주택 공급, ③보건·의료 향상, ④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선정하여 추진
- 루토 정부는 기존 4대 국정과제에 디지털 혁신을 추가하고, 제조업 활성화 분야를 창조경제 육성으로 확대하여 5대 중점 분야 육성으로 5개년 사업을 개편함.

2) Vision 2030은 크게 경제, 사회, 정치 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2012년부터 연평균 10%의 경제성장률 달성, 사회적으로는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평등한 사회 발전을 통한 공정하고 화합하는 사회 실현, 정치적으로는 인권을 보장하고 일·결과 중심의 정치기반을 통한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이러한 목표 아래 10대 주요 과제로 거시경제 안정, 거버넌스 개혁, 소득 불평등 개선 및 빈곤층의 부 창출 기회 제공, 인프라 확대, 에너지 개선, 과학·기술·혁신 강화, 토지개혁, 인적자원 개발, 치안 강화, 공공분야 개혁을, 6대 육성 분야로 관광업, 농축산업, 무역, 제조업, 금융, IT를 선정하였음.

정치안정

2022년 9월 5대 대통령으로 윌리엄 루토 대통령 취임

- 2022년 8월 실시된 대선에서 윌리엄 루토 전(前) 부통령이 50.5%를 득표하며 48.9%를 득표한 라일라 오딩가 전 총리에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며 케냐 역사상 가장 치열한 선거가 되었으나, 예년과 달리 부족 간 큰 갈등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됨.
- 키쿠유족인 우후루 케냐타 전 대통령이 자신의 부통령인 루토 후보(칼렌진족)가 아닌, 수년 간 정적 관계에 있던 오딩가 후보(루오족)를 지지하면서 치열한 선거가 치러짐.
- 선거 결과 발표 전 7명의 선거관리위원 중 부위원장 등 4명이 대선 결과의 불투명함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오딩가 후보 역시 패배에 대하여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정 공방 끝에 선관위원장은 헌법에 따라 의무를 다했으며 루토 후보가 적법하게 대통령으로 선출됐음을 선언하였고, 대법원이 선거 결과를 확정함에 따라 루토 대통령은 9월에 취임함.

야당연합(Azimio) 대표인 라일라 오딩가의 주도로 대규모 시위 발생

- 2023년 3월부터 야당연합(Azimio)의 주도로 2022년 대선 부정선거 의혹, 고물가, 세금 인상 등을 이유로 매주 두 차례씩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개최하였고, 3~7월 사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 2023년 7월 여당은 야당과 국가대화위원회(National Dialogue Committee, NDC)를 구성, 이견을 해소하고 관련 헌법 및 법률 개혁을 시행할 것에 합의하면서 반정부 시위는 중단됨.
- 그러나 루토 대통령이 국고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한 재정법(Finance Act 2023)*이 7월 1일부로 시행되면서 Azimio의 주도로 동 법에 반발한 대규모 시위가 여러 차례 발생함.
* 주요 내용: 연료에 대한 부가세율을 현 8%에서 16%로 2배 인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기본급의 1.5%(최대 월 5천 실링)를 주택기금으로 납부
- 7월 19일에 발생한 시위에서 케냐 경찰의 최루탄 발포로 6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야권 인사를 포함한 시민 300명 이상이 체포됨.
- 6월 30일 케냐 고등법원에서 일부 조항의 합헌 여부 판결을 위해 법 시행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한 달 뒤 해당 조항 개정 후 동 명령이 해제되었으며, 이후 9월 야당 인사들은 효력 정지 해제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했으나 대법원에 의해 기각됨.
- 2023년 12월 Azimio의 오딩가 대표는 국민의 생활고 악화에 유감을 표하며, 재정법을 포함한 각종 세제 도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반정부 시위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함.
- 앞서 루토 대통령은 2022년 9월 취임 후 식품, 연료 및 전기보조금을 폐지하였고 이에 생활비 인하 등 대선 캠페인 당시 주요 공약을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식품 및 연료 가격을 높여 국민의 생활고를 가중한다는 비난을 받음.

사회안정

소말리아 테러 조직 알샤바브(Al-Shabaab)에 의한 테러 위험 상존

- 소말리아에 근거지를 둔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알샤바브(Al-Shabaab)를 축출하기 위해 조직된 아프리카연합(AU)의 소말리아 평화유지군(African Union Mission In Somalia)에 케냐 정부가 2011년 10월 군 병력을 파병한 이후 알샤바브는 케냐를 주요 공격 대상으로 지정, 급조 폭발물에 의한 무차별 테러 공격을 자행하여 케냐의 치안이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관광업·물류업 등 서비스업 위축, 외국인투자 감소 등의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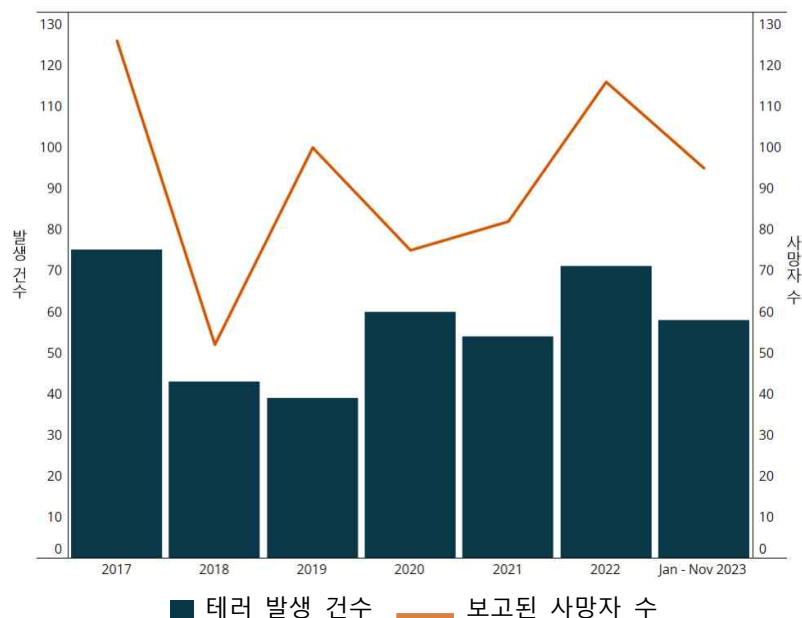
* 주요 사건: '13년 나이로비 웨스트게이트 쇼핑몰 테러(67명 사망), '15년 모리 대학교 가리사 캠퍼스 테러(148명 사망), '19년 나이로비 호텔 테러(10명 이상 사망), 케냐-소말리아 국경 인근 북동부 지역 도로 폭탄 매설 테러(10명 이상 사망), '22년 Lamu 지역 테러(6명 사망)

- 최근 소말리아 접경 지역인 케냐 북동부(Mandera, Wajir, Garissa)와 동부(Lamu) 지역에서 테러 공격이 크게 증가함
- 2023년 6월부터 알샤바브가 주로 활동하는 4개 주(Mandera, Wajir, Garissa, Lamu)에서 케냐 보안군과 민간인을 타겟으로 한 알샤바브의 공격이 크게 증가했으며, 6~8월 사이 발생한 테러 중 절반 이상이 Mandera 주에서 발생함.

* 최근 주요 사건: '23.6월 Lamu 지역 2개의 마을을 급습하여 민간인 5명을 참수 및 칼로 살해, Garissa 지역 도로에 매설된 급조폭발물(IED)의 폭발 및 충격으로 총 10명(군인 4명과 예비군 6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 발생, '23.7월 Mandera 지역에서 발생한 알샤바브와의 교전으로 케냐 군인 6명 사망 및 다수의 부상자 발생

- 경제평화연구소(IEP)가 발표하는 2022년 글로벌테러지수(GTI)에 따르면 케냐는 총 163개국 중 20위, 동아프리카 국가 중 2위(1위 소말리아)를 차지함.
- 2022년 대선으로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테러 발생이 증가하면서 알샤바브에 의한 테러 사망자 수는 43명에서 51명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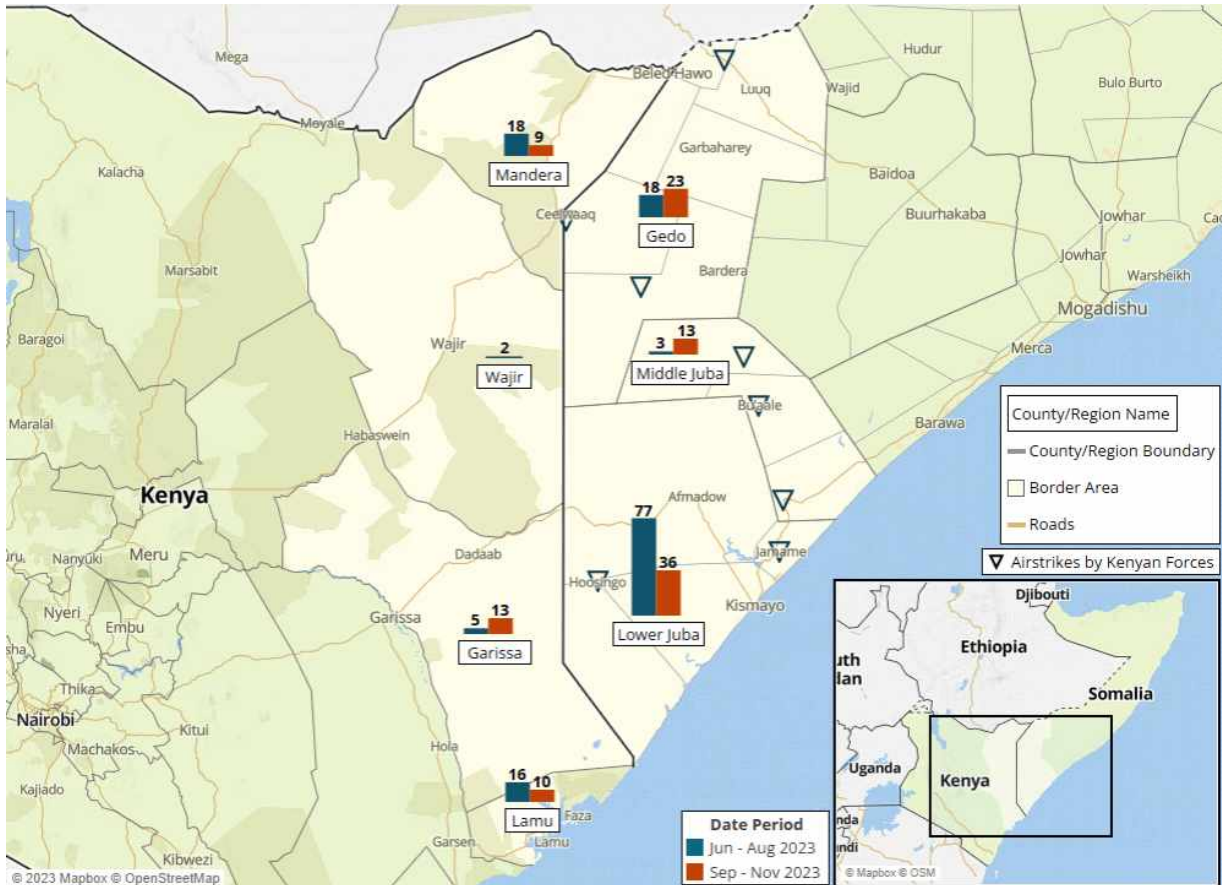
[그림 9] 민간인 대상으로 케냐-소말리아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알샤바브 활동('17.1~'23.11월)



자료: The Armed Conflict Location & Event Data Project(ACLED)

사회안정

[그림 10] 케냐-소말리아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알샤바브 활동(23.6~12월)



자료: The Armed Conflict Location & Event Data Project(ACLED)

사회안정

2023년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전년 대비 3계단 하락한 126위 기록

- 2023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보고서에서 케냐는 31점(100점 만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국 중 126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2022년 123위보다 3단계 하락한 결과로, 루토 행정부의 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케냐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C) 회원국*들 중 유일하게 점수 및 순위가 하락한 국가로,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는 케냐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주요 걸림돌로 적용하고 있음.
- * EAC 회원국들의 2023년 부패인식지수: 르완다(53점, 49위), 탄자니아(40점, 87위), 우간다(26점, 141위), 콩고민주 공화국(20점, 162위), 부룬디(20, 162위), 남수단(13점, 177위)
- 루토 신임 대통령은 집권 이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부 관료들의 극심한 부정부패가 공공재정에 손해를 끼친 것과 관련하여 관료들의 부정 혐의 발견 시 즉시 기소 및 처벌하고 있음.

[그림 10] 케냐의 부패인식지수(CPI) 점수 추이(2013~23년)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TI).

국제관계

동아프리카의 지역경제공동체 내 선도적 역할 수행

-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맹주국으로서 아프리카 역내 지역통합을 중시하여 지역공동체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케냐는 현재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동아프리카 정부 간 개발기구(IGAD),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회원국임.
- EAC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의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세동맹과 단일 공동시장을 형성하여 역내 상품·서비스·자본·노동 이동이 자유로움. 현재 단일통화 도입을 추진 중으로 당초 2024년으로 계획되었으나 2031년으로 연기됨.
- AfCFTA는 2012년 아프리카연합(AU) 총회에서 아프리카 역내 교역 활성화를 위해 창설된 자유무역지대로, 2019년 5월 30일 공식 발효, 2021년 1월 1일 공식 출범함. 55개 AU 회원국 중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54개국이 서명하였으며, 2024년 1월 기준 케냐를 포함한 47개국이 비준을 완료함.
- AfCFTA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2022년 10월 시범운영(Guided Trade Initiative)을 출범하여 운영 중으로, 현재 케냐를 포함한 7개국이 참여 중이며 올해 31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임.

서방 및 아시아 국가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 노력

- 케냐는 영연방의 일원으로, 전통적으로 영국,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실질적인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도 확대해 왔음.
- 케냐타 전 대통령 집권 초기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C)의 기소³⁾ 등으로 서방 국가와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으나, 이후 미국 대통령의 아프리카 국가 순방, AGOA 연장⁴⁾, Power Africa Initiative(전력·인프라 친환경 에너지사업) 참여 등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현재 동아프리카 내에서 미국의 전략적인 경제·안보 협력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2021년 3월, 케냐는 영국과 영국산 상품에 대한 영구 면세, 민감품목 보호의 점진적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함. 영국 수출기업들은 평균세율이 25%에 달하는 케냐의 수입관세 적용에서 면제되어 다른 국가들보다 경쟁우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12월에는 EU와 농산물에 대한 무관세 혜택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함. 이로 인해 케냐는 EU 시장(케냐 총수출의 21% 차지)에서 농산물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받으며, EU 상품은 케냐 시장에서 관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됨.
- 현재 미국과 전략적 무역 투자 파트너십(STIP)을 추진 중으로, 당초 2023년 12월 협상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연기 후 올해 1분기 중 협상이 재개될 예정임. 기존 AGOA가 2025년 9월 만료를 앞두고 있음에 따라 새로운 경제협력 정책으로서 동 파트너십을 추진함.
- 한편, 중국은 케냐의 최대 수입상대국(2020년 기준 상품수입의 21.9%)으로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으며, 중국 자본을 기반으로 한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로 인프라 투자에 따른 대중국 채무액이 큼.

3) 2007년 대선 이후 선거 결과를 놓고 발생한 종족 간 유혈사태 배후를 주도한 혐의로 케냐타 전 대통령이 ICC에 기소되었으나, ICC 공소가 2014년 12월 철회됨.

4) 아프리카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발전과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출품에 대한 미국 시장 무관세 접근을 허용하는 미국 정부의 특혜무역조치임. 2000년 첫 시행 후 현재 2025년까지 시효가 연장됨.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하나 연체액이 증가 추세

- 케냐는 1994년, 2000년, 2004년, 2021년의 네 차례에 걸쳐 파리클럽과 채무재조정을 실시함. 파리클럽의 최신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케냐의 파리클럽 회원국 및 관련 기관 앞에 대한 채무잔액은 총 3,023백만 달러로, ODA 채무잔액은 2,768백만 달러이며 그 외 채무잔액은 255백만 달러임.
- 2023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1,832.1백만 달러(단기 293.9백만 달러, 중장기 1,538.2백만 달러)이며, 현재 잔액의 약 3%에 해당하는 58.6백만 달러를 연체* 중임.
* 연체액(백만 달러): 10.0('20.9월) → 30.7('21.9월) → 38.6('22.9월) → 58.6('23.9월)
- 2022년 5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 채무연장(리스케줄링)이 없는 점, IMF 및 World Bank에 대한 외채의 연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교적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보이고 있음.
- IMF는 외환보유액 확보 등을 목적으로 2022년 중 케냐에 대해 총 6.82억 달러의 대출을 승인했으며(7월 2.35억 달러, 12월 4.47억 달러), 2024년 6월 예정인 200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 만기 도래에 대비하여 2024년 1월 EFF/ECF 협정에 따라 9.412억 달러의 대출 증액을 승인, 이 중 6.245억 달러의 즉시 지급을 결정함.
- 한편, 중국은 세계은행에 이어 케냐의 두 번째로 큰 대외 채권자이며, 지난 10년간 중국으로부터 대출한 자금은 케냐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2023.06)	7등급(2022.07)
Moody's	B3 (2023.07)	B3 (2023.05)
Fitch	B (2023.07)	B (2022.12)

Moody's는 케냐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

- OECD는 2022년 6월 재정적자로 인한 부채 의존도 증가, 대선 전 정치적 불확실성 존재 등을 감안하여 케냐의 국별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Moody's는 2023년 5월 정부의 유동성 리스크 확대 및 국채 수요 약화 등에 따른 자금 조달 상황의 악화를 근거로 월 케냐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B2 → B3) 조정함.
- Fitch는 2022년 12월 쌍둥이 적자의 지속과 높은 부채 수준, 대외유동성 악화, 높은 외부자금 조달 비용 등을 근거로 케냐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B+ → B) 조정함.

- 2023년 케냐 경제는 농업 및 관광 분야의 회복과 민간소비 활성화에 따라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5%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케냐는 쌍둥이 적자, 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및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공공부채 및 외채 규모가 큰 편으로, 루토 행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보조금 폐지 및 재정법 제정을 통한 세수기반 확대, 낭비적 정부지출 억제를 통하여 채무관리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 케냐 정부는 농업 의존적 경제구조를 탈피하여 다변화된 경제구조를 형성하고자 제조업을 육성 중이며 특별경제구역 등을 활용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나, 유틸리티 등 기본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임. 특히 2023년 전국적 규모로 3차례 발생한 정전 사태로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함.
- 2023년 고물가, 세금 인상 및 세제 도입으로 인한 생활고 악화를 이유로 장기간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으며, 2022년 대선 이후 2023년까지 알샤바브에 의한 테러 공격이 크게 증가함.
- Moody's는 정부의 자금 조달 상황 악화를 근거로 케냐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B2 → B3) 조정하였음.